

# 北에 경고장 날렸지만 해법은 '대화'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자중자에 하라" 불량행동 엄중 경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안 ... 통합당엔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지만 사태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입법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한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원구성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법사위를 단속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법사위 논란은 이미 종결됐다"면서 "정쟁과 당리당락도 국가 비상상황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소집을 요구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통합당에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려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무력도발은 대화와 화해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불사르는 행위다. 북측이 진정 원하는 것이 파국이 아니라면 자중자에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군 역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철통 같은 대북감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접경지역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또다시 강행될 경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 단체의 돌발행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 일각에서 핵무장과 통일부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 데 기를 불어넣는 격이다"며 "북한이 무책임하게 도발한다고 우기도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한다면 전쟁의 위험한 커질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 경고와 별도로 그림에도 결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특사단 자격으로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온 윤경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한 안보를 확인하는 것"이라

며 "좀 더 과감한 돌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지점이 왔다"고 분석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과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 전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한미 워킹그룹 중지 등의 구체적 실천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특사 제안을 공개 거절한 것은 우리를 안전히 무시한 외교적 결례지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잠시 기분을 위로할 뿐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입법은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통합당 "與 혼자 다 해봐라"

### 대북 현안 다루는 정보위 구성 요구에도 보이콧 계속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의 원구성 대치 사태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북 현안을 다루는 정보위만이라도 우선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여파가 정보위로 연결될 모양새다.

정보위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구성된 6개 상임위와 달리, 정보위는 여당만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정보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통합당의 보이콧에 야당 몫 부의장은 공식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8일 "정보위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부의장 후보를 내놓지 않아 시작부터 막혀 있다"며 "국가 안보가 위기

에 빠진 만큼 속히 정상화를 하자고 통합당 측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임명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통합당은 원구성은 물론 정보위 구성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바뀐 게 있어도"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그는 지방에 은거 중이다. 정보위만이라도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는 "정보위를 구성한다고 함들 비공개로 하는 중요 보고를 거기서 하겠나라"며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8일 "정보위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부의장 후보를 내놓지 않아 시작부터 막혀 있다"며 "국가 안보가 위기

##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김한중 의원 사실상 확정

제11대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김한중(사진·3선·장성2)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 53명은 18일 도의회에서 하반기 의장 후보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단독 후보로 선출했다.

제1 부의장과 2 부의장 후보로는 구복규(재선·화순2) 의원과 김성일(재선·해남1)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 후보 3명, 제1 부의장 후보 2명, 제2 부의장 후보 3명이 경선에 참여했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에 전경선(초선·목포5)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박문옥(초선·목포1)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에 강경희(재선·여수6)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에 이현창(초선·구례)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에 최무경(초선·여수4)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정광호(초선·신안2) 의원, 교육위원장에 유성수(초선·장성1)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 전체 의원 참여 속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다. 전체 의원 58명 중 민주당 53명·민생당 2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이어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형호 기자 khh@

## 추미에 "윤석열, 한명숙 사건 감찰 중단 옳지 않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

심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 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삽입하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접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 검사들과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연한 접수 받은 뒤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을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이날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감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뉴딜 대책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정세균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간담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문화뉴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상임위 차원의 첫 업무 간담회를 열어 3차 추경 예산안과 법안,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훈 의원과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문체위 위원, 박양우 문체부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

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의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정책을 발굴하는 물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완성도 높은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강은미, 광주서 5·18 왜곡처벌법 의견 수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광주에서 5월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을 5·18묘역에서 참배로 시작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정의당 의원으로서 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의정 성과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 유족회 김영훈 회장, 부상자회 김

이중 회장, 구속부상자회 문홍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막말과 망언, 가짜뉴스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서서 법을 통과시키고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b>의료시설</b>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